

믿음 지혜 실천	<h1>BUDDHANARA</h1> <p>부다나라 (불국사)</p>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5월 9일 11시: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 입재  
 셋째주 일요일 10:30분: 봉축 칠일기도 회향 및 봉축 법요식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봉축 법회 및 가족 운동회 오전 11시 - 오후 3시  
 10시에 제주 사우나 주차장에서 만나서 법회장소인 공원으로 함께 출발합니다.  
 야외법회장소: Fort Yargo State Park

부다나라(불국사) 후원회 -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Every Tuesday 6:30 pm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Intensive Meditation: Fourth Tuesday of the Month (매달 넷째주 화요일 저녁) 7:00 PM - 10:00 PM  
 Movie Night: First Thursday of the Month (매달 첫째주 목요일 저녁) 7:00PM - 9:00 PM

이달의 범구경

사람으로 태어남은 커다란 사건이고,  
 삶은 쉬지 않는 노력이네.  
 부처님 가르침 자주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고,  
 부처님 이 세상 오심은 아주 드문 사건이네.

It is a great event to be born a man; and his  
 life is an ever-striving. It is not often he hears  
 the doctrine of Truth; and a rare event is the  
 arising of a Buddha.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2011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 지닌 미완의 여래”

- 법전 종정예하 봉축법어 발표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법전 종정예하가 봉축법어를 발표했다.

법전 종정예하는 오늘(4월25일) “모든 중생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신(法身)을 갖추고 있어 아름다운 불성을 지닌 미완의 여래”라며 “자성(自性) 밖에 진리가 없고 부처가 따로 없으니 찾으려면 잃게 되고 구하면 멀어진다”며 부처님오신날을 참되게 기리는 일은 자신이 부처님임을 바로 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전 종정예하는 이어 “마음은 부처를 빚어내는 진리의 원천이며 번뇌는 중생과 부처를 분별하는 근본”이라며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여래의 덕성을 갖춘 미륵의 현신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자비와 나눔을 지닌 문수와 보현”이라며 자신을 바로 보고 이웃과 함께 정진하길 당부했다.

아래는 봉축법어 전문.

불기 2555(2011)년 봉축법어

시방법계(十方世界) 모든 곳을 찾아보아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감이 없는 진불(眞佛)은 형상과 자취가 없고  
생멸(生滅)이 없이 온 누리에 변재(遍在)하여 있습니다.

실상(實相)은 텅 비고 고요하여 볼 수가 없지만  
한 티끌 한 빛깔 속에 불멸의 본체는 드러나 있으며  
여러분이 듣고 보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금(古今)이 없고 시종(始終)이 없는 묘용(妙用)을 나투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신(法身)을 갖추어 있고  
아름다운 불성(佛性)을 지닌 미완(未完)의 여래(如來)입니다.  
자성(自性) 밖에 진리가 없고 부처가 따로 없으니  
찾으면 잃게 되고 구하면 멀어집니다.

마음은 부처를 빚어내는 진리의 원천이요.  
번뇌는 중생과 부처를 분별하는 근본입니다.  
중생의 마음 마음이 부처의 마음 아님이 없고  
일진(一塵) 일색(一色)이 불국토 아님이 없으니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여래(如來)의 덕성(德性)을 갖춘 미륵(彌勒)의 현신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자비와 나눔을 지닌 문수(文殊)와 보현(普賢)입니다.

무진 번뇌 속에 천년(千年)의 어둠을 제거하는 광명이 있고  
미혹가운데 만년(萬年)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기용(機用)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엽매임의 틀을 풀어 헤치고  
새들이 나무에 앉아 실상(實相)을 노래하니  
보고 듣고 깨닫는 이것을 떠나서

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마(會麼) (알겠는가?)

불기 2555(2011)년 사월 초파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도립 법전



### 시청앞 봉축 석가탑 燈 점등

서울시청 앞 봉축장엄물 ‘석가탑등(燈)’이 환하게 불을 밝히며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2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장엄물 점등식을 봉행했다.

국보 21호 불국사삼층석탑(석가탑)을 원형으로 삼아 ‘1:1.618’의 황금비율로 제작한 석가탑등은 좌대 포함 높이 18m크기의 전통 한지로 제작돼 석가탑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특히 균열이 발생한 석가탑의 균열상태를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불교성보관리자로서의 자성과 더불어 민족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이 있는 국가적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민족문화 수호활동의 일환으로 점등식에는 정.관계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불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불법승 삼보를 외치는 불자 2000여 명의 합성과 함께 환하게 불을 밝힌 석가탑등은 서울시 전역에 장엄된 5만여 개의 가로연등과 함께 연등회(연등축제)의 축제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전한다.

### 부처님 세간에 나신 본 뜻-경전 기록을 중심으로

부처님이 오심을 동천에 솟아오르는 아침 해에 비유할까, 검은 구름 흩어진 후 찬란히 쏟아지는 한낮의 햇살이라고 할까. 무지 무정의 구름에 싸인 범부에게는 억겁의 미혹을 깨트려 영겁불명의 생명수를 맞이함이 된다. 그런 만큼 고뇌 속 중생에게는 끝 모를 희망과 용기의 날인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지 2천 6백 년이 넘는 오늘에도 여전히 이 빛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가 아닌가.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과 함께 우리의 책임을 돌이켜 본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한 뜻을 풀이하는데는 종교적·철학적·문화사적 각 측면으로 그 각도가 다른 것이다.여기에서 철학적·문화사적인 측면은 덮어 두고 종교적 측면, 곧 불교의 경전에 나타난 설화와 기록을 중심으로 풀어 보기로 한다.

우리 인류의 역사 위에 수많은 철인·성자·학자·사상가가, 맑은 가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보름달처럼 뚜렷이 홀로 드러난 분이 석가세존이라고 보겠다. 많은 종교가·철학자가 나타나서 우주·인생 문제를 탐구하여 그 나름대로 풀이하였지만 석가세존처럼 가장 근본적이고 철저히 파헤치고 남김없이 해결지은 분은 없었던 것이다.

석가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뜻을 철학적으로는, 본인이 일찍이 <四次원적 연기세계(四次的緣起世界)에서 본 석가세존 출현의 의의>라는 논문을 몇 곳에 발표한바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만 불경에 나타난 석가님 탄생의 뜻을 찾아보기로 한다.

### 불경에 나타난 부처님이 오신 뜻

불전(佛典)에 기록된 부처님의 탄생설화에 의하면, 먼저 지나간 오랜 세상에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고 [難行能行],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으면서(一生補處=보살도를 다 닦아 마치고 그 한 생만 보살로 있다가 다음 세상에는 부처가 된다는 지위) 보살인 선혜(善慧)보살로서 욕계(欲界) 제 4천인 도솔천(兜率天)에 태어나서 수도하다가 그 수명이 다하게 되면 우리 인간에 강생하여 불도를 성취한다는 것이다.

「선혜보살이 공덕행(功德行)이 만족하여 십지위(地位)에 올라 일생보처에 있으면서, 일체종지(一切種智=부처)를 증득 할 때가 되어 도솔천에 탄생하여 모든 천주(天主)들을 위하여 설법하다가 도솔천의 수명이 다하면 장차 인간에 강생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다.……보살은 이미 그때가 가까워오자 모든 천주들에게 고했다.

「선남자여……알아두라, 모든 조각된 법은 [諸行] 다 무상하다. 나는 오래지 않아 이 천궁을 버리고 염부제 [인간] 에 강생할 것이다.」

그때에 모든 하늘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슬퍼하여 부르짖어 울면서 매우 번민했다.……그때에 보살은 모든 하늘 사람에게 타이르기를, 「선남자여, 모든 중생은 그 삶을 받아 나면 죽지 않음이 없고 은혜와 사랑으로 회합하면 반드시 이별하는 것이다. 위로 색구경천(色究竟天)으로부터 아래로 아버지육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모든 중생은 무상이라는 큰 불에 타 닳지 않는 것이 없다. 나와 너희들은 다 이 나고 죽음의 치열한 불을 벗어날 수 없도다. 부귀 빈천 그 누구나 다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연법이 다 무상하나 [諸行無常]  
이것은 나고 꺼지는 법이다 [是生藏法]  
나고 꺼짐이 다 없어지면 [生滅滅正]  
아주 꺼져버린 것이 즐거우니라 [寂滅爲樂]

이 계승은 과거 모든 부처님이 다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인연 따라 이룩된 법은 다 이러하니 너희들은 오늘에 근심, 번민은 내지 말라. 나는 한량없는 과거에 나고 죽음을 겪어 왔다. 오늘에 이 한 몸 버린 뒤에는 나고 죽음을 길이 떠나서 일체 종지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 할 때이다. 내가 장차 염부제의 가비라족 석씨 종족의 숫도다나 [白淨飯] 왕가에 태어나서 장차 부모를 여의고 처자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배워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 마군을 항복 받고 일체 종지를 성취하여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리니 이것은 일체 세간 . 천상 . 인간 . 마군이나 법천이 다 굴리지 못하는 법의 수레바퀴이며 또한 과거 모든 부처님이 행하신 법식에 의하여 널리 일체 천인 대중을 이익하게 하는 것이며 큰 법의 깃대를 세워 마군의 깃대를 꺾어 버리며, 번뇌의 바다를 말리고 八정도(正道)를 깨끗이 닦으며, 모든 법의 인장으로 중생의 마음에 인치며 [印] 큰 법회를 베풀어서 모든 천인을 청할 것이다. 너희들은 또한 그 모임에 참여하여 범공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근심하고 번민하지 말아라.」 <過去現在因果經>

이것이 대체로 석가님이 우리 인간계에 출현한 뜻이라고 보겠다.

또 보요경(普曜經)에는 보살의 도솔천 생활은 더 자세히 기록하였다. 즉 부처님은 인간에 강생할 시기가 되어 육아백상(六牙白象)을 타고 하늘 풍악 속에 사월 八일 밝은 별이 떠오를 적에 어머니 태중에 강신(降神)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태자가 탄생하자 스스로 일곱 발자국을 걸으며 오른손을 들고 사자후를 하기를,

「내가 모든 천인(天人)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도다. 한량없는 나고 죽음이 이에 다하리로다. 이생에 일체 천인을 이익케 하리라.」 고 선언하였다고 한다. 과연 갓난아기가 일곱 발작을 걷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석가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의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은 인과경 . 서응경(瑞應經)등 여러 경에 보인다.

그리고 대승경인 <법화경 방편품(法華經方便品)>에,

「여래가 오직 한 가지 큰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이른바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견 [佛之知見] 을 열어 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중생에게 부처의 지견을 보여 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깨쳐 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였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다. 이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뜻은 소송법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상 —승법(乘法)으로 끌어들이어 부처의 최사정각(正覺)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그것을 부처의 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쳐 들어오게 함에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래가 세상에 출현한 참뜻은 한 가지 큰 인연을 위함이나. 곧 부처의 부사의 한 지혜 문을 열어 보이며 깨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리고 화엄경 이세간품(離世間品)에는 부처님이 탄생한 뜻에 대하여,

① 온갖 번뇌와 생사를 여원 도를 성취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며,

- ② 광명을 온 세계에 널리 비추어 주기 위하여 탄생했으며,
- ③ 다시는 몸을 받지 않기 위한 최후 생으로 탄생했으며,
- ④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도리를 증득하기 위하여 탄생했으며,
- ⑤ 삼계가 꿈과 환술 같은 줄을 알면서 몸 받아 났으며,
- ⑥ 시방세계에 널리 몸을 나타내려고 출현하였으며,
- ⑦ 온갖 마군을 항복받고자 출현하였으며,
- ⑧ 일체 중생을 교화 . 제도하려 출현하였으며,
- ⑨ 모든 악도를 없애기 위해 출현하였으며,
- ⑩ 한량없는 보살을 다 교화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대소승경전에서 석가님이 탄생한 뜻을 말하였다. 인과경과 보요경등은 소승경이고, 법화 . 화엄경 등 대승경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석존 탄생의 현대적인 해석은 이와 좀 다른 면도 있지만 생략한다.  
-월간불광에서-

天上天下唯我獨尊 一切皆苦吾當安之  
만생명의 행복을 위하여 이땅에 평화와 기쁨을 위하여 이땅에 오셨네  
一切衆生悉有佛性 (법화경)  
부처님께서 이세상에 오신 참뜻은 일체 생명의 가치는 똑같음을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오신것이다.

花中君子는 연꽃이며 處染常淨이라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는다. (因果應報:좋은인연 맺음)  
연꽃은 자기몸에 물방울이 맺지않는다 (正念:마음챙김)  
연꽃은 더러운 곳(마음에 시궁창)에서 꽃이핀다. (五濁惡世:극복)  
연꽃은 花微笑라 오묘한 법칙이드러나 만다라화라 한다. (慈光照處蓮花出)



### 세상을 밝히는 가난한 여인 난타의등불 (근본 일체유부 비나야잡사12)

사뭇티에 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여인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집 저집 다니면서 밥을 빌어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어느날 온 성 안이 떠들썩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프라세나짓왕은 석달동안 부처님과 스님들께 옷과 음식과 침구와 약을 공양하고 오늘 밤에는 또 수만개의 등불을 켜 연등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성안이 이렇게 북적 거립니다." 이 말은 들은 여인은 생각했다 '프라세나짓왕은 많은 복을 짓는구나.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나도 등불을 하나 켜서 부처님께 공양해야 겠는데.'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겨우 동전 두 닢을 빌어 기름집으로 갔다. 기름집 주인은 가난한 여인을 보고 기름을 구해 어디 쓰려느냐고 물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뵈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 부처님을 뵈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나는 가난해 아무것도 공양할 것이 없으니 등불이라도 하나 켜 부처님께 공양할까 합니다." 주인은 여인의 말에 감동하여 기름을 곱절이나 주었다. 여인은 그 기름으로 불을 켜서 부처님께서 다니시는 길목을 밝히면서 속으로 빌기를 '보잘것없는 등불이지만 이 공덕으로 내생에는 나도 부처님이 되어 지이다'라고 하였다.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다 꺼졌으나 그 등불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등불이 다 꺼지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주무시지 않을 것이므로 아난다는 손으로 불을 끄려 하였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다. 가사자락으로, 또는 부채로 끄려 했으나 그래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난다에게 말씀 하셨다.

"아난다, 부질없이 애쓰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의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진 등불이다.

그러니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이 말을 전해 들은 프라세나짓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었다.

"부처님, 저는 석달 동안이나 부처님과 스님들께 큰 보시를 하고 수천 개의 등불을 켜었습니다. 저에게도 미래의 수기(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말씀)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불도란 그 뜻이 매우 깊어 헤아리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니 깨치기도 어렵소. 그것은 하나의 보시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백천의 보시로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소. 그러므로 불도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로 보시하여 복을 짓고, 좋은 벗을 사귀어 많이 배우며 스스로 겸손하여 남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기가 쌓은 공덕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뒷날에 반드시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오." 왕은 속으로 부끄러워 하면서 물러갔다.

\* 불자는 오직 간절한 신심으로 불을 밝히십시오.

마음으로 심지를 삼고, 자비를 기쁨으로 삼으며, 생각으로 기쁨을 삼으며, 공덕으로 빛을 삼는다. 그래서 탐심 진심 어리석음을 없앤다. 보시공덕.지계공덕.수행공덕으로 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염원하며, 내마음의 부처를 밝히고, 가정에서 부처를 만나고, 이웃에서 부처를 찾으시고, 곳곳에서 부처를 만나고, 항상 만나는 사람에게 공양을 올려리십시오.

---

## "소유가치 아니라 존재가치에 중심 뒤야"

도법스님 "정부.조계종, 제 길 가면서 국민 위해 적극 협력해야"

지난 19일 조계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불자회 법회에서 "정부.여당도, 조계종단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 화제를 모았던 도법 스님은 26일 "국가나 정부 여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조계종 역시 중생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와 만난 도법 스님은 "법회 법사를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조계종단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자는 마음에서 했던 것"이라며 "원칙을 상기시켰을 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야단을 치겠느냐.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고 했다.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후 정부.여당 인사의 사찰 출입을 막는 등 정부.여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19일 한나라당 불자회의 조계사 법회를 허용, 양측의 갈등이 봉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됐다.

도법 스님은 "법회 이후 정부.여당과 조계종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내가 제시한 두 가지 원칙대로만 한다면 정부.여당과 조계종의 관계가 바로잡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헌법 정신, 불교 정신에 근거해 정부.여당은 정부.여당대로 자기 갈 길이 있고, 조계종은 조계종대로 자기 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각자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 또는 중생들의 이익과 평화,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입니다. 이러한 원칙대로만 간다면 관계가 저절로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도법 스님은 지난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싼 '봉은사 사태' 당시 중재안을 이끌어내는 등 불교계 안팎에서 두루 신망을 얻고 있으며 평소 불교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조계종 화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원효의 화쟁 사상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도법 스님은 "(민주화 운동이 치열했던 80년대부터) 대립으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함께 가는 길을 열 것인가 고민해왔는데 서로 편 갈라 싸우는 것을 화해시키고 융합시키는 것이 바로 화쟁 사상이자 생명평화운동이었다"고 말했다.

"화쟁 사상과 생명평화운동은 싸움은 말리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라면서 종교갈등 이념 갈등, 남북갈등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화쟁사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스님에게 들었다.

"사람들이 무지와 혼란, 고통과 불행을 벗어던지고 평화와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한 것이 부처님의 일생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지' 두 가지 물음에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도법 스님은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여기 존재하는 우리들이 천하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완성되고,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라고 말했다"면서 "인간을 하찮게 생각했던 2천600년 전 당시 상황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인권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이 말은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에 눈을 떠야 한다는 말"이라면서 "존재 가치를 중심에 놓고 살아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님도 소유 가치를 놓고 보면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며 매일 같이 얻어먹고, 넘마 입고 노숙했습니다. 하지만, 존재 가치에 눈을 뜨고 존재 가치를 중심에 놓고 사셨기 때문에 늘 만족하고 당당했으며 늘 평화롭고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존재 가치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살 등 사회 문제의 해답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기사 발췌-

### 초파일과 4월의 음식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일이다. 이 날은 손님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데 느티떡, 볶은 콩, 미나리강희, 상추떡, 화전, 증편 등의 소찬(素饌)을 대접한다.

이 날은 또 등불을 켜므로 등석(燈夕)이라고도 한다. 등석절은 신라, 고려시대를 통하여 불교가 성황했던 때의 유속이다. 또한 콩볶음을 만들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어가면서 불가와 인연을 맺었다고도 한다.

초파일의 대표 음식인 느티떡은 뽕짚가루에 어린 느티 잎과 팔고물을 켜켜이 얹고 찌낸 떡으로 어린 느티나무 잎에는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며, 팔은 사포닌과 이소플라본, 비타민 B1과 단백질,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 합니다.

미나리 강희는 봄철 미각을 돋우는 음식의 하나로 미나리는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며 정유성분과 각종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4월 음식으로는 증편이 있고, 노란장미 꽃을 따다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마치 삼진날의 화전과 같다.

이러한 사찰음식은 영양과 기능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인공첨가물과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아 자극적이고 감칠맛에 길들여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소박한 음식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할 수 있습니다.

### 봉 축 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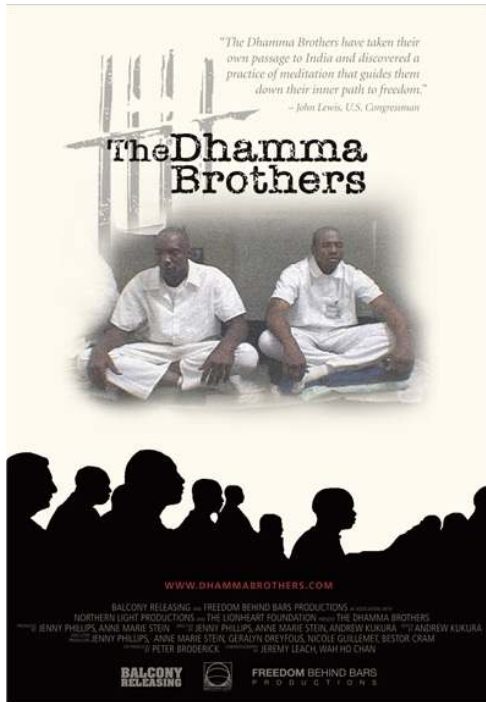
은 누리에 가득하신 광명의 부처님,  
정갈한 마음으로 향 사르며 공양하오니  
한 줄기 향연이 법계에 가득하여  
부처님 회상 상서롭게 장엄하여지이다.  
저희가 무량한 세월 착한 인연 뿌리내려  
금생에 '부처님 만남'의 꽃 피웠습니다.  
이제 가냘픈 신심이나마 여린 가슴에  
초발심의 촛불되어 타오르고 있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오직 한 가지 중생을 청정케 하시고  
큰 깨달음의 길 열어 보여 주시려는 원력으로  
사마에 나투신 그 '오심'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찬란한 오월 떨리는 감격으로 님을 맞사옵니다.  
크나큰 가피와 은혜 그 빛나는 만남 위해  
기도하옵니다.  
언제나 '부처님 오심' 그 기쁨으로 가득하여  
오락의 삶 속에 한 송이 하얀 연꽃  
피워내기 발원하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영문이름: Buddhana Temple)에서는 불기 2555년 (2011년) 5월 9일 (양력)에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를 입재 및 연등을 만들기가 있었고, 5월 15일 일요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칠일 기도 회향 및 법요식을 가집니다. 또한 2555번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국사에서는 일년 연등 공양도 올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일년 연등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나 한국 불국사 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일년 연등 및 일년 영가 연등 동참은 5월까지만 접수 받습니다. 가족등 및 일인 일등 모두 접수 받습니다. 기도 동참금은 \$100.00 (한국은 십만원) 입니다.

### 불교 영화의 밤

“불교 영화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5월 상영 영화는 “The Dhamma Brothers” 입니다.



### Welcome to the Buddhist Movie Night

Title: The Dhamma Brothers  
Date: May, 5  
Time: 7:00 PM  
Where: Buddhana Temple (Monastery)

The documentary about prison inmates in Alabama who took up Buddhist meditation to help themselves change. The Dhamma Brothers tells a dramatic tale of human potential and transformation as it closely follows and documents the stories of the prison inmates at Donaldson Correction Facility who enter into this arduous and intensive program. This film, with the power to dismantle stereotypes about men behind prison bars also, in the words of Sister Helen Prejean (Dead Man Walking), "gives you hope for the human race."

Refreshment prepared

###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 안내: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 안내: 오는 불기 2554년 5월 9일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봉축하는 야외법회가 눈부신 봄날 Fort Yargo State Park 에서 열립니다. 작년보다 더 다채로운 행사와 많은 기념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많은 법우님들이 참석하시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뜻있는 시간 다함께 나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조지아주 애틀랜타 둘레주 일요일 5월 8일 야외 봉축법회는 아주 큰 호수를와 아름다운 Trail들과 보트 선착장 까지 있어서 일요일 근교 나들이 장소로서는 최고로 꼽을 만한 Fort Yargo State Park에서 가집니다. 주요 일정 시간 및 행사: 오전11시 ~ 오전12시 : 야외법회오전12시 ~ 오후1시 : 점심공양 오후 1시 ~ 오후 3시 : 단주 만들기, 얘기 연등 만들기, 각종 퀴즈 및 게임, 어린이 운동회 Fort Yargo State Park는 차 한대 당 5불씩 주차료로 받기 때문에 일단 Duluth 제주 사우나 주차장에서 10시 00에 모여서 다함께 출발합니다. Duluth 제주 사우나 가는 방법: (I-85 North 방향: Exit 104에서 Pleasant Hill Rd로 좌회전 한 뒤 Mall Blvd로 우회전하셔서 들어가시면 왼쪽에 나옵니다. ).
- 2010년11월부터 애틀랜타 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정기 법회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고 친숙한 경전중 하나인 “천수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부처님 오신날 특별법회로 천수경 강의는 쉬고, 6월달에는 천수경 제 7회째 내용으로 “관세음보살의 열두가지 다른 이름, 대다라니”편 을 법문합니다. 꼭 법회에 참석하시어 “천수경”을 다시한번 음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봉축 칠일 기도 및 봉축 법요식 안내: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기 2555년 (2011)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칠일기도를 봉행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은 5월 15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봉축칠일기도와 일년연등 모연에 동참 바랍니다.
- 5월 불교 영화 상영은 “The Dhamma Brothers” 입니다. 5월 5일 저녁 7시부터 상영하고 간단한 간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화 상영후에는 영화와 관련된 간단한 토론회도 있으니 불자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의 응원 바랍니다.

- 5월 11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에 약 3개월간 머물면서 영어와 미국 생활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서 운현 스님이 오십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3학년 재학중인 스님은 올 한해 휴학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미국 사찰 체험과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오시는 스님에게 부다나라 대중은 마음을 다해 스님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운현스님 환영 합니다.

2011년 4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번 병자생 한정언, 3번 경진생 장복도, 29번 무술생 김정훈, 30번 무술생 문명하.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